

육군50사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현장에 가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더 강한·좋은 육군 문화 정착 선포식'에서 3대 실천강령 중 하나를 '육군 구성원과 가족을 존중하고 책임지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로, 세부 15개 실천지표 중 하나를 '부하의 휴가·휴식, 일·가정 양립, 일과 후 취·학업 여건을 보장한다'로 각각 정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녹아들지 못하면 말 그대로 서류상 문구에 그치기 마련이다. 육군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일선에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갔다.

공동육아
소통 공간

부모·자녀 교감 사랑방…육아 품앗이도
“색종이를 두 번 접어 모양을 잡아주 세요, 중앙에 풀 발라주고”, “유연이는 다른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 26일, 육군50사단 군 관사(두산아파트) 202동 101호 강철공동육아나눔터(나눔터)에서는 5~7세 유아 대상 종이접기 수업이 한창이었다. 잠적한 군 자녀들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색종이를 접어가며 휴지 걸이를 속속 완성했다.

지난해 10월 개원한 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교감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이용시간은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 하는 오후 4시 이후지만, 오전에도 어머니들이 모여 대화하며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사단 신병교육대대 김민수(중사) 병기관리관의 아내 정파란 씨는 “군인 가족들은 별다른 연고 없이 이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눔터가 다른 엄마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며 “아이들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사회성을 높이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나눔터를 위탁 운영하는 대구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이접기 교실 외에 텃밭 가꾸기, 케이크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백일남 사회복지사는 “요구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설·진행하고 있다”며 “부모님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제도
확대

직장어린이집 신설·휴식공간 운영

사단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간부들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눔터 외에 직장 어린이집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계가 한창이며, 군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책 읽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도 추진 중이다.

여군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인 여성필수시설도 사단 내에 무려 68곳을 운영 중이다.

장병 개개인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활용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단 간부 중 8명이 탄력근무, 36명이 육아시간, 3명이 모성보호, 23명이 자녀돌봄 제도를 각각 이용하고 있다.

하루 2시간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 중인 전소민(중사) 회계복지기금담당관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주고 9시 30분까지 출근한 다음, 오후 4시 30분 퇴근해 데려온다.

전 중사는 “육아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지가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부서장님도 관련 제도를 알고 계셔서 육아시간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며 “남편이 ‘사회에는 이런 제도를 쓰기가 오히려 힘든데 군인이 육아와 일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① 육군50사단 전소민(중사·오른쪽) 회계복지기금담당관이 출근 전 대구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김민숙(왼쪽) 원장에게 아들 이윤건 군을 맡기고 있다. 전 중사는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해 아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고 있다.

② 육군50사단 군 관사(두산아파트) 내 강철공동육아나눔터에서 종이접기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③ 사단이 지난해 10월 개원한 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교감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육군50사단 간부의 자녀들이 강철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종이접기 수업 후 완성한 휴지걸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종원 기자

⑤ 공군11전투비행단 정연찬 소령 부부가 아들과 함께 11전비가 운영하는 광성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군인가족이라 더 행복하게… 환경 조성되고 문화가 바뀐다

공동육아나눔터·육아시간 보장 등 다양한 정책 구현 박차

남자간부 육아휴직 점차 확대

아빠도 함께 부담 해소 “코로나도 걱정 없이”

육군의 ‘더 강한·좋은 육군 문화 정착’ 분위기 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는 군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군인 및 가족들이 자부심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자, 안정적인 군 생활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육아에 필요한 제도 활용은 일선 부대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추세다.

이재성 소령도 육군56사단 보급수송대대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육아휴직에 들어가 8살 아들을 돌보고 있다.

대위 때도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이 소령은 “초임 장교 시절에는 제도 자체를 몰랐다”며 “지금은 남군들도 누구나 육아휴직에 대해 듣는 바가 있고 기회가 되면 쓰고 싶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

다”고 전했다.

부부군인이기도 한 이 소령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로부터 예상치 못한 공지가 종종 오는 상황에서 부모님 손을 빌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추진 중인 ‘행복한 육군 가족 만들기’ 사업에 힘입어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령은 “자신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되는 시점에 육아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부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해·공군,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 추진

병력 규모 면에서는 육군보다 작지만, 해·공군 역시 일과 가정 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 등 정책적 배려

해군은 특히 장기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해군 특성상 자녀를 둔 기혼 여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부 군인의 경우에는 동일 지역 내 부부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되 동시에 함정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함정 근무 중 임신이 확인된 여군은 태아보호를 위해 육상으로 보직을 변경토록 조치하고, 만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군은 연고지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부산·평택 등 주둔지역 관사에 어린이집 8곳을 운영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해군은 지난 2015년 5월 1일 전군 최초로 양성평등센터를 신설해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군 양성평등센터는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의 ‘여성정책·고충상담센터’를 한층 더 보강한 것이다. 양성평등센터는 해군·해병대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 인지력 및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과 교육지원, 여성인력 관리, 여성 고충 수렴 및 처리, 일과 가정 양립 관련 정책 수립,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자문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공군도 군내 여성인력과 부부군인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병영문화 확산과 부부군인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 및 가족지원정책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왔다.

먼저, 공군은 기존에 즐겨져 있던 일·가정 양립 지원규정을 통합해 알리는 ‘양성평등 보이스’를 지난해 1월부터 공군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한국경영인총원이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공군 23개 부대가 참가해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공군 내에서 자녀의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출산·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군·남군무원 사용자는 더욱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군17전투비행단 김재완 상사는 “육아시간 활용으로 바쁜 아침 시간에도 자녀 네 명의 수면과 식사 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며 “현재 3명의 자녀가 부대에서 운영하는 군 어린이집에 다녀 가계지출과 육아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군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주관하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일·가정 양립은 공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공군 장병과 군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서, 가정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수·조아미 기자

인터뷰 육군50사단 박 준 섭 인사참모

“육아여건 보장, 전투력 창출과도 직결”

“우리 부서 장교인사관리장교도 하루 2시간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도 홍보가 많이 되면서 간부 본인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육군50사단 박준섭(중령) 인사참모는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부서장이 무서워서’ ‘과연 보내줄까’라는 의구심에 제도들을 사용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단은 ‘장병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업무 효율·훈련성과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높은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 중령은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조직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갑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시행이 안 된다”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중령은 사단 남자 간부 중 육아휴직자가 14명, 이중 올해 신청자만 8명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육아휴직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양성평등상담관이나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간부들이 진급하는 등 이후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중령은 “육아여건 보장과 환경 조성이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글=최한영/사진=조종원 기자

